

‘영암여행 1+1’, 관광·소비 선순환구조 구축

군,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5개월간 1만4000여명 유치
순매출 7억 이상 성과...골목상권에 고른 소비 이끌어

영암군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지역 소비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 방문객에게 혜택을 제공한 ‘영암여행 1+1 사업’이 1만 4000여 관광객 유치, 순매출 7억원 이상의 성과를 남겼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영암여행 1+1’은 외지인이 1인 또는 2인 이상팀으로 영암을 찾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소비 연계형 관광지원사업이다.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한 영수증과 관광지 방문 사진 등을 관련 홈페이지에 올리면 사용액에 따라 지역화폐인 월출페이나 온라인 영암몰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31일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됐다.

‘영암여행 1+1’ 홈페이지 분석 결과 사업 기간 영암을 찾은 관광객은 총 1만 4119명, 이들이 지출한 소비액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7억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센티브 3억2500만원은 월출페이로, 4600만원은 영암몰 포인트로 지급돼 지역 경제에 다시 환원됐다.

영암 여행객이 인센티브를 신청하며 제출한 정산 영수증 약 1500건은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서 관광객의 소비가 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업종별 순매출 영수증 발행처는 음식점 48.8%, 숙박업소 23.6%, 생활·유통업소 16.6%, 카페 5.6% 등 순이었다.

영암군은 이를 두고 관광을 곧바로 소비로 잇고, 숙박과 식사로 이어지는 체류형



영암여행 1+1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 ‘2025 영암국화축제’ 모습.

관광을 유도한다는 사업 취지가 잘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된 월출페

이의 업종별 사용 내역도 음식점 33.3%, 주유소 16.6%, 생활·유통업소 8.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광객이 56.8%로 남성 43.1%보다 높았고, 연령대는 40~44세 28%, 35~39세 19.8%, 45~49세 14.5% 순으로 집

계됐다.

영암군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영암여행 1+1’ 참여 기준과 인센티브 지급을 더 현실화한다.

인센티브는 개인은 5만원 이상, 2인 이상 팀은 10만원 이상 소비하면 지급하고, 소비액 중 1회차는 50%, 2회차는 75%를 주기로 했다.

소비 인정 한도도 개인 20만원, 팀 40만원까지 확대하고, 디지털영암군민증 가입자에게는 1회차에 한해 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여행객은 ‘영암여행 월플러스스원’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하고, 숙박·식사·체류 등 소비 내역을 인증하면, 월출페이로 관광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관광객이 오고, 머물고, 쓰게 만드는 관광·소비 패턴을 지역이 주도하겠다”며 “영암여행 1+1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이 순환하며 끊임없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진도개 Dog 스포츠, 31일 올해 첫 공연

교감 공연·어질리티 등
다양한 체험 활동 운영

진도군은 오는 31일 올해 첫 진도개 공연을 시작하면서 진도개 테마파크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진도개 관련 문화와 진도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2월까지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진도개 주말 독(Dog) 스포츠와 진도개 학습장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독(Dog) 스포츠를 진행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전 11시에는 진도개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교감 공연, 진도개의 영특하고 민첩함을 볼 수 있는 달리기, 견주와 진도개가 협동해서 장애물을 헤쳐 나가는 어질리티, 강아지를 직접 만지고 배우는 진도개 학습체험장 등을 운영한다.

진도개테마파크는 진도개홍보관, 쉼터, 잔디밭 놀이터, 미니동물농장,



진도군은 오는 31일 진도개 공연을 시작하면서 진도개 테마파크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운영하는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주말 독스포츠는 지난해 117회(정기 101회, 특별 16회) 운영했고, 약 16만 명이 진도개테마파크에 방문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진도개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해 진도개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방문객들에게 진도개의 우수성과 진도만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5월 초에는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진도개 페스티벌 & 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해남, 법원·검찰청 법조단지 이전 ‘속도’

해남읍 남외지구 신축 부지 최종 확정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법검찰청 해남지청과 함께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성흥 해남지원장, 윤석환 해남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982년 건립 조성된 현재 구교리에 위치한 해남지원과 해남지

청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의 신축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해남읍 남외지구를 신축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해남 법조단지는 해남읍 남외리 431-3 일원, 총 3만 2038㎡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법조단지 조성 부지 매입, 예

산확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법조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31년 준공할 예정으로, 세부 건립 규모와 공사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다”며 “군민과 이용객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법조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완도, 41억 투입 대기 환경 개선 추진

전기차 보급·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완도군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국·도비를 포함해 총 41억원을 투입, 대기질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이동 오염원의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33억원을 투입, 전기 승용차 127대, 전기 화물차 77대, 전기 버스 3대, 전기 이륜차 29대, 수소 승용차 2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종별·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 차종, 지원 금액은 2월 초 진행한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 완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만 16세 이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중앙

행정기관은 제외) 등이다.

전기 자동차·이륜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이륜차 판매사에서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하며, 계약한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감축 사업도 추진한다. 9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4·5등급) 212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차원이 다른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

고효율 히트펌프도 결국 캐리어

120년 노하우가 빚어낸 지속 가능한 냉난방 혁신

2025 NEW 에코 히트펌프 솔루션 EHS

※ 본 제품은 오텍캐리어의 기술력으로 연구·개발되어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0% 이상
압도적 에너지 효율
(당사 정격 시험 조건)

최대 58°C
고온 난방,
폭한도 거뜰하게

4 사이클
독립 운전,
멈춤 없는 냉난방

탄소까지 줄이는
고효율의 안정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캐리어를 www.carriermall.co.kr | 홈페이지 www.carrier.co.kr

구입 문의 1588-8855 | 서비스 문의 1588-8866 | 전국 510개 서비스 네트워크